

陣法談解

46
678
15



일천문고
권수 0296



678
15

陣法범諒언해

節전目목總총論논

을위사람이집의드러셔노날나호사람이부외오
동심이형테여니와나면장쉬부외오又은더오곤
시형테나장슈의계정성이업스면내부모를혀디
아니호노약시오又토더오를서르사랑티아니호
면내형테를버리노약시라장슈도곤스를내어린
지식又티사랑티아니호면장슈의도리아나라곤
시어려온배를당항야부모쳐즈를싱각호며일변
으로싸힘의드러셔가죽을가두려즈러너라나호
곤서이시너又장이육호곤스의일이라싸호턴곤
실일팀다죽디아니호호니싸힘을이권후의도라

와 부모쳐주를 만나 보이나라 하셔 상주시고 일심은
영화로 다녀려니와 두라 닳셔가즈러 잡피여 버히
면 부모쳐주도 보디 못흐고 못발주검이 되리니
해롤싱각호면 두라 나기 그르고 아니 두라 나기
호줄을 알리라 사름이 미양사지 못호야 호번을 아
마도 죽으니 출하리싸 호다가 죽으면 나라 히통신
이 되고 주손의 게음이 밋고 세상의 일 마름이 되리
라도 망호야 살기 도욕이 오전 땅의 죽기 노영 회오도 망
호야 살기 노 못발놈의 일이 오전 땅의 죽기 노 땅부
의 일이니 이 말이 조곰도 헛말이 아니라 이 책을 볼
으며 의오싱각호면 알리라 사름이 거기 노 장판이
여기 된 총과 큰 병이던 법을 다 아라 상시에 너 아

홀서시도티클못흐노장관이며괴티총이며군병
이다알기어려오애온갓호령과싸흥절차와상시
습전흐노법을인문으로번역흐야외담으로인드
라내여시니괴티총이어나언문흐노범군들이브
티힘버닐으면너히게장유익흐리라출츄슈티
제이척을군장일례로렴고흐며뜻을강문흐야전
헤모르노괴티총이면화병의느리오고범군스승
의잘외오리이시면괴티총의오리라죄녀을알
이셔도셋도건을외오면근장흐나식감흐리라셔
괴도일례로시형흐리라

장관과군병들이온갓군장과괴체를조초와미친호
것업시흐야말시예도적을만날드시미고을먹고

잇다가 졸연하도록 괴별이 잇거든 쥬장이 군수를
교당의 외호되솔과 음식과 흰복을 주고 초와 티샹의
버려 제후의 흰복을 묵베혀 피내여 술병의 붓고
몬져 쥬장이 잔을 잡고 밍셔 하야 날오던공잇는 군
수상쥬기를 공변도이아나거나 군수를 망녕편이
주기거나 지물을 탐하거나 요호일쿠조일을 군수
파호가 지로아나거나 정성잇고음으로나라홀듬
더아나홀면이 피고트리라하교마시기를 못참애
버거와 총이 잔을 잡고 밍셔 하야 날오던 만일애싸
홀제군수의 게문적내듯더아나거나공잇는나와
죄잇는군수의 게샹과 벌을 공변도이아나거나정
성으로도적파싸호지아나거나손옷장슈를쿠키

아니거나 남의 죄를 물었거나 남이 든 독적의 머리
를 노릇도거나 망녕죄이 죽이거나 잡은도적을 짐승
노릇면이 피맛투리카마시길물모춤애초판이잔
을잡고흐가지로망셔하고버거기총이항가지로
망셔하고버거디항이항가지로망셔하고버거삼
디군수철흔이잔을잡고흐고니러망셔하야닐오
디군수들이일심으로아니거나도적을보고장슈
의형을바디아니거나싸홀배예물러디거나도적
의머리롤노릇도거나망녕도이죽이거나기디항을
구리아니하면이피맛투리라호기다못춤애도다
로기초초로다못차든은군수일시에쥬장서샤례
하라쥬장이노인정의철당호말로다시키유하야

닐오뒤곤수들이다드르라문의나도적을남음야
이밍셔할대로곤법을히할새시니그배에원망호
디말라다시온곤시아도록닐러든각병이월시에
모음을고통하고괴운을다다마죽국의도적을
만나사호디못을노출을애달와하느니이러듯은
면문의나디아나할야셔블셔이길괴운이잇느니
라

물잇장판과군시상시습딘이나정바흐의귀로노
다문증과남소리를쉐퍼드러증치거든긋치고봄
키거든나아가되봄을드문드문치거든드문드문
가고봄을조조치거든조조가라눈으로노다모의
출해펴보아기원편으로마르치거든원편으로가

고을호편으로마르치거든을호편으로가고압프
로마르치거든압프로가고뒤호로마르치거든뒤
호로가라붙소리긋치다아너저든압피불과물이
라도두라들고승려긋치라늘거든압피보외파도
적의머리이셔도나아가지디말라괴를베나아
가라호야든죽을싸히라도나아가고괴를베디아
너저든하늘과귀신이불러움죽이라호야도움죽
이다말라밤싸홍의논등반노법이나죄괴브노법
파호가디니라

군등의새호형을늘려호면불을노호를새시니불소
리나거든장판이나군서명심호야므슴호형이나
노고숨려보고드러팅호노때로죽시시호호고형

군을 배에 등군소에서 불소리나 거든 각근식가리
자리예결의셔셔새호령을기느리라

장호령은군등투목을모느라흐노일이오즈음을
로리기노안스라흐노일이오브라불음은나러셔
라흐노일이오외브라불음은투목안나러셔라흐
노일이오과뒤오나발은대리로셔되미괴흐무턱
이되야스이를신길식뷔오고셔라흐노일이오만
과기불음은쇼뒤로흐닐식뷔오고셔라흐일이오
니를뒤흐로느루치며당성나발물음은가변이일
시에턴신흐라흐일이오조련할제불노코당성나
발불음은북노당모군을거루거나후초금병을거
루거나후북병을거루워도라오과자함이오출발

호들은 뒤오를 정제과자함이오방던렸다가술말
을 처엄의호들은 양악과거마창을것고쇼디를일
오과자함이오두번재호들은대디를일오고표과
다도라오과자함이오습던호를제대취라함은물을
닷거나열거나혹근시신디로도라가과자함이오
장디예척대장잉기를마함은장관이오관말이오
잉기를루로문장관이도카가관일이오장디예블
노코지흐나세음은아모영이나아모천총이나아
모파홍이나응호관일이니블근괴어든전영이어
나전뷔어나전시어나전화어나응호고플은괴어
든좌영이어나좌뷔어나좌시어나좌최어나응호
란일이오루른괴어든등영이어나등뷔어나등시

어나 동회어나 응하란 일이 오할 것이냐 우영이 어
 나우 뛰어나우 시어나우 회어나우 응하란 일이 오거
 든지 어든 후영이어나 후 뛰어나 후 시어나 후 회어
 나 응하란 일이 오당보지 마하거느도적이 완하란
 일이 오몸을 둘러주로 마하거느도적이 만하란 일
 이 오세 번 마하고 세 번 거들은 도적이 엄하란 일이라
 증서를 올리거느 목노항보를 내거나 기치를 내여
 버리거나 소방표기를 내여 세우라 흥이라

흥군흥백에 도적이 모를게 하느도 텅은 초목가지를
 턴하거느 처라하느도 일이 오를 정이를 턴하거느 안
 주라하느도 일이 오고 땅을 턴하거느 천천이가라하
 느일이 오관이 천을 턴하거느 샅리가 과하 흥이 어

당탕전을현호기는출혀싸호파다호거나호도적
이어다아니키나혹수문도적을막파다혹이라
포위도적을만나싸흔죄몬적갑내야도적이멀리
이셔철환못밋쳐갈곳의셔불을다노코화약철화
이다업븐줄을도적이알고물겨오면호일이업서
공연히다죽기를면티못하나다상시습던의정
법을나기다아난라시나이후관상시습던과훈츄
시방호를죄정도적디호느시호던도적이어나가
오나호령포노코현아성소리진호를기려주레
로노호디도충부리를맞치도적의가슴이나를튼
도적이어든물거리를변화노코도적이안히물겨
오나도그가온대호나호변화노코혹불의느디아

니커나물근 쇠를 견호디 아니커나호손으로 호음을
 잡고호손으로 화승을 망하 쇠 예세오디 아니코불
 을 다히거나 후철선호거나 후농히들고노커나후
 논게견조고노커나 겁내여별고장약을 놀래못호
 논근서어든상시여느디당이패를 빼거나 전남을
 벗기거나호얏다가내종의장관의게보내야커리
 호고디당이턱발아니커든디당재호가지로죄를
 주고정사홍의란글언호수를터당이못골호귀를
 베헌다가내종의베히되턱발아닌디당이란호가
 지로베히라현아형아니분전의불을노화홍사두
 도적을죽여드공이업고도로혀베히리라

정사홍리호사사름이물러디기든파총을베히표

총이 물러나더 아티도적의게 죽거든 관하초관을
다베히고 초관이 드려오게 죽거든 의총세흔다베
히고 의총이도적의게 죽거든 의당세흔다베히고
의당의도적의게 죽거든 의하군수일명을다베히
라 의당을일코도적의의당을잡앗셔든속죄하고
의총을일코도적의의총을잡앗셔든속죄하고
관이나과총이나처사로나이범대로하라

정도적과티하야던려실바예도적이만하나적그
나온다하고당보군이보정하야든각군병이요동
히말고고요하야잡소리말고김버디말고부음을
든든이먹고장슈의호평만기느리라히혀그바예
지적외기나능물거룩하거나잡말하군시어든

로 뒤흘 마루 쳐든 곡 띠을 치라

항군 흘 제삼 티 핑 항 항라 항 면 호 령 항 는 불 흘 주 르
노 크 남 흥 빅 고 료 괴 세 흘 세 위 든 초 관 티 당 은 앞 기
셔 고 괴 총 은 뒤 의 셔 고 각 티 노 늘 언 이 가 되 일 티 노
가 온 대 셔 고 이 티 노 원 편 의 셔 고 상 티 노 을 흘 편 의
셔 되 흘 보 너 비 예 흘 티 셔 노 나 라

원 앙 뒤 셔 는 뒤 은 일 삼 오 칠 구 경 이 원 편 의 셔 고 이
수 늘 팔 심 명 이 을 흘 편 의 셔 되 두 줄 스 이에 사 클 항
나 히 도 널 만 치 셔 고 압 뒤 사 록 스 이에 도 사 록 항 나
도 널 만 티 셔 라

場장標조法범

습 니 괴 회 를 령 항 날 의 조 령 항 노 패 를 두 라 든 각 영

이런 하야알라

등군이 초이취 이르며 느음을 주장이 드러 물은 고
비금날의 주장은 문답의 선 초취 하 거든 과 장 관 문답
의 도 초취 하야 각각 군병의 밤을 짓게 할 고 장 관 도
하 가 지로 밤을 지으라

이취 하야 든 장 관 과 군병이 밥을 먹고 군장을 솔러
교양의 나가 항오를 빌이라 기고 관은 청도위의 물 주
장 문답의 가 벌 어 기 드러라

삼취 하 고 주장이 물을 타 문답의 날 제 불 세 르 노
코 증 두 번 쳐 든 대취 하라

주장이 교양의 다 뜻 거 든 증 세 번 쳐 대취 하 물 뜻 처
묘를 하 르 노 코 원 가 성 불 어 든 각 병 이 기 물럼 으 며

고함할기를세번하고증호번취나할을긋치고증
두번터대취타하고등등군파천파호초관이인노
고되셔사러마자더나거든즉시쫓차원문밖으로
가라

쥬장이장차당히에다뎃거든증세번을러취타를
긋치고증을올려든시치를좌우의노화체오고
증려긋치고천총으로초관사지원문밖셔가등보
와기들이라

쥬장이좌를러하고등증을려잠산취타하다가증
을러취타를긋치고등군파키고관파괴패관이더
샹의셔문적태하고버금의군노와순시슈와취고
취반탈로각각드러고두하고기거하고등뒤담고

물러나라

흥군이승당포호령을품하고명하야귀리하야든
디답하고물러나호령하노블세즈큰노코증두번
디대취라하야반당이문적웨되되스참제라하야
든되지으하고소리로디답기를세번하교미춤애
되스하나히작문의잇티나아가셔러기문을블러
든기슈디답고기를밧그로두로발고나거든증세
번취취타를긋치라

흥군이승의하기를품하고귀리하야든디답고물
러나호령포호하노큰블세오고증세치레를리
고기를돌라증블취블피증을구치고영장천화추
초판이원문으드말의암아치초로두라드러비하

그즉시잇던사호로가라

몸은이호덕을부러장판과기디총을외화발남홍
을풀고기리야든디답고물러나호령은홍
루노코즉시쌍대평호를물며청도기좌우로바도
너리가거든장판과기디총이니을느키쫓차가
가던현머리에니르러몸을두로허물갈로말미암
아도라올라오디디당은괴를누엇다가장디아래
가괴를구디세오고의호회느리셔고각파총과초
판괴디홍은각죄줄의아조마극향야셔라청도
기사러고호디장판과기디총이마죽이니르러다
하야든기거하야디답고물러나라증을려려영호
를긋치라

등곳이 텨야 보오디 장판이 디 총이나 아오라 하
야 든 각 각 함서 디 답고 모 참애 죽시 발을 든 어물을
두로 혀나 아섯다가 불호 번을 러 든 몬져 디 양버금
은 디 총이 오 초 판 와 총 천 총이 초 초로 다 서 러 든 등
초 이 러 상 의 서 러 다가 몬져 너 러 발 방을 널 오 디 양
판 과 거 디 총 이 드 러 귀 로 노 증 불 소 리 를 들 고 노
오 로 노 거 발 기 를 보 고 손 으 로 노 리 여 디 르 기 를 너
기 고 걸 음 으 란 나 아 가 여 국 치 기 를 너 기 고 일 만 사
름 이 모 임 을 호 가 지 로 하 라 하 아 든 아 호 고 군 법 이
텨 텨 하 미 인 너 니 라 하 야 든 아 호 고 다 시 아 모 란 분
부 호 거 든 죽 시 소 리 를 디 답 고 모 참애 별 장 천 총 과
총 초 판 이 디 총 이 초 초 로 소 리 를 높 꾀 고 호 디 아 모

고루한양은괴기흔거든아하고모춤애즉시몸을두
로혀를러쳐엄섯틴뒤셔루안호로향호야석기물
형호라

괴고관이현호야닐오뒤순시관성등이다나아오
라호야드소리를응호고괴과관은암회셔로호신
괴노뒤희셔러든발방들려올오뒤물릿조현의를
어엄슈괴아나키나딘릴제항외마죽괴아나키나
히영호를제남로드도와내듯거나뒤호로건더거
나딘을님호야장슈의팅을어괴롭거나도적을버
히매구티연놈의비힌머리를앗거나싸흠을모초
머망팅죄이항호사람을죽기거나종종히그른일
을호거나법을벌호면다듯보와잠아취취호리라

호야든 아호고 만일 잠은 도적을 짐짓 노코 갑슬 구
호면 비죄를 다스리리라 호야든 아호고 각각 고두
호고 기거 호야든 아호고 을러 나라

장판과 기딤 총을 더 방의 너러 보법을 품호고 기리
호야든 물러나 죽시 틈 호야든 벌오 더 장판과 기딤 총 들
이 신디 예 너러 가라 호야든 흠서 마 죽이 더 답고 증
을러 고대 취타 호며 침도 기 장판과 기딤 총 거 너러
틴 친 어리로 가 도로 을러 오 더 장판과 기딤 총 이 각각
신디 예 도로라 너 거 든 침도의 노로 도로라와 서러 고호
더 장판과 기딤 총 이 신디 예 갖다 호야든 기거 호야
든 더 답고 을러 나라 증을 세브 취타 을 곳치고 호
형포 호호 죽 르 노코 나 를 을 터 든 각각 이 안 사 쉬 고 증

을려나물긋치고오방괴를다누이거든각영이호
가지로누이라

음군이속정포노키를품하고괴리호야든뒤담고
물더나물세주루노코등군이장호호야전현을품
하고괴리호야든뒤담고물더나즉시호취하고증
맛을딩딩을테당보내기를열담을받되미담의두
사름이열필음통안식안즈라이취하고호령포호
주루노코변라불어든각군병이니러서고증을을
터브라를긋치고호령포호주루노코물근방삭괴
물더상의세치든전영이듯보와기드리다가올음을
뒤를향하여_{뒤를향하여}디름하거든진영창이또호을흔뒤를향하여
야름하고천과총초판거티총이니음두라름하야

듣증을 더 괴롭누이 고증 마을을 더 오방 괴 초를 니
르히 세 줄로 노 화세 우라 호령 모흐스르 노코 몸을
넌음 더 오방 괴 초를 넌 거든 각 영이 호가지로 텨
하야 움스 기라 전 경은 장 티 앎 프로 못 티 동 텨 호로
죽차 선 텨 호로 향 하야 바로 가 그 좌 영은 벗 개 혀 가
되을 호 편 된 뒤 희 니 르 더 남 텨 호로 향 하야 니 리 고
둥곤 파 괴 고 등 은 앎 온 좌 영 뒤 희 다 코 뒤 한 둠 영 앎
피 다 코 우 편 각 영 은 둠 영 쇼 리 다 흠 을 기 더 려 서 루
못 더 라 가 되 섰 거 도 노 고 들 만나 든 괴 총 으 로 우 히
괴 를 넌 음 이 라

전 영 어 리 장 티 인 편 의 니 르 러 앎 피 고 초 괴 두 면 세
위 든 둠 곤 이 호 령 모 호 스르 노 코 증 텨 넌 음 을 죽 혀 든

과병이 섞라길 노호는 불을 노코고 초기 불을 노호
수대로 세오그 불을 힘 노야 든 우영 후 영이 전 불을
흔편의 두라와 두길히 되고 등 한이 멍 영은 두로
뒤회가 되 큰 병이 힘 영야호브드라 표양 함되 나르
러든 호령 포호즈루 노코나를 알타든 과병이 간자
쉬라 증거나를 갖치고 오방의 초를 다누이거든과
잉이흐가지로 누이러

항보의 혼들어도 적의 차별을 알외여 든 전 영이 리
초관오 마만이 소리로도 적 차별이 다하야 든 각의
향이니 음자라 현하야 현소리 예니 르러 든 죽시도
로알과 다함이 도로 현어 리 예니 르거 든 호령 포호
즈루 노코브라 불고 오방의 초를 다니 르혀 세어 든

과병이섯다가몸두로혀라하노나발을물어든과
병이죽시몸을두로혀고몸털을기클스로하여과
리오나발을물어든과병이셀리드라드러호일주
로건을벌여치되미호지로호터되호터삼양수의
를뒤오라전영은원투압층이되고우영은을뒤
압층이되치안호로부터바그로향하여벌이고좌
영은원투뒤층이되고후영은을뒤뒤층이되치
바그로부터안호로향하여벌이고만일수로히이
어든전후층이다바그로향하여벌이라두층수의
를승이결음을수이하고등군과괴등을유은대이
서안픈전층뒤히다드고뒤흔후층압되안고등경
이노영이되노노각영화병은다노영의드러라다

사단 파리나 발을 불어 든 원앙 더러움 벌이 더스 이를
위각 호발 석하 각 더 벌 일 제 가 온 대 더 노 숨 지
말고 좌 우 편 더 벌 여 셔 라 증 을 더 나 발 을 갖 치 고 호
령 포 호 주 르 노 코 나 를 더 든 가 병 이 안 자 쉬 고 증 을
더 나 를 갖 치 라

노적 이 박 보 안 회 들 거 든 호 령 포 호 주 르 노 코 나 라
불어 든 가 병 이 나 러 셔 라 증 을 더 브 라 를 갖 치 고 호
령 포 호 주 르 노 코 현 아 성 불어 든 도 흉 위 제 방 호 고
죽 시 더 오 를 거 두 라 화 전 호 나 노 화 든 천 증 사 쉬 다
포 슈 이 더 곱 의 나 르 러 현 아 성 불어 든 사 쉬 마 죽 이
쓰 라

호 령 포 호 주 르 노 코 곱 을 더 곱 하 야 든 사 쉬 도 라 들 고

후층이 전층되시이로나 전층압피셔기드러다가
 붓을씨오며 현아성불어든과병이괴비를잡아압
 풀향하야고함하고스드라드러씨호다가증
 러붓을긋쳐든호면의호괴어나호되어나좌우의
 어므러후목병을삼고또붓을털하야든조로가다
 가또붓을씨오며 현아성불어든고함하고싸호다
 가긋치고호면의호괴어나호호되를내야좌우의
 어므러전복병을하고또붓을털하야든셀리가다
 가붓을씨오고현야성불어든고함하고싸호되각
 병이원안되로되빅이다미러싸호다가도적이패
 하야든증을러붓을긋치고솔밭을흔들어든과과
 뒤오를정제하고두번싸흔들어든과과노화쇼제

음성이기름에세번쳐든기베란압할향하고몸피더
리란뒤향향양을뒤오다가스으나문거름만와증
을두빈치문이년도적이뜻차음이니각병이즉시
몸을두로혀범의소리글하고엇다가셔증을더는
일디오년헐하고도적을달내야전복병안히들기
들목병이고함하고함서닐고즉시증두번더든과
병이몸을두로혀범의소리하고령야섯다가복
을써오며현아성불어튼고함하고싸호기를호변
하고도적이패하야든셔증은현군을물린고나발
을돌장하부병이뒤오더세번물니전증압치니
트려증두번쳐든범의소리하고령야섯라

모병이도적을보고진시에너자아너커나스려닐

언복병거늘린장판이쌍시면볼기맛고령싸흥이
면베히러라

또도적이오노형상이잇거든물러온후총군시눈
방하고비금의샤쉬반고호령포호주루노코뭇을
털음거든처엄의호총나다아릿된군병이나싸호
세호령흥기와복병거기를다전스치호고노영
일편이로기병을좌우의는화모내야도적들러갈
갈이그마니미므러드라라나싸호는호령파싸
흥으한몬져싸호후총법스치다들어하라
이제노두총군병이흥서전호령흥가지로배도적
을살오티호면의호니어나호호되를적희위후드
취의복병은그름고뭇싸오기와친아성노리문

타지아니며 고함을 못타지아니기는이느호추려
만싸흠이니보닌바귀병도일시에뒤흠쫓차고함
하고흠기니라암호로마조낫고노영병도밥소리
돌쫓차고힘하야형세를도으라

도적이패하야든증을려몸을긋치고출발을올테
든각병이디오전대로티오를정기하고즈음을려술
발을쫓쳐든전증은후증수이로나고후증은전증수
이로나되호령으란암긋리세번의물너과과신디
에니르러귀비를다세웠다가호령포호주르노코
나를올테든안자쉬라

등군이칭호터도적이임의패하야나시니방
권을타고공과죄를사히하야지라품하고그리하

라하야 든디답고물녀와호령포호느루노코증마
을팅팅올려든오방기효잡은사름이동군의등심
으로몬져가사방으로바로각각기클헤아려본
음쉬차거든세위사방의포를령호고각의느사방
대기로더브러호가지로정문기아래로붓티나좌
우로편히가거름취차거든세위사각의포를령호
고호령포호느루노코브라불이든각병이니려셔
고증려브라곳치고몸을떨호며파더오나발을볼
여문괴를마하거든가병이괴를브라머가야미부
넛드시밧총파안총을링고등초은주복가온대
잇고각영장은외류사각안히이시라단파리나발
클어든각병이프러쇼디를빌리고증더니발을곳

처를속기거마창을떠며말암쇠를노코각병이당
악은리라

호령포호즈루노코두번새증근을올려든복노병
과당모관을노화령하되과각도충과화살과화전
을가지고다등군의가군호와팅전을거느려문의
내여보내되등군의치관이혜아려내라호령포호
즈루노코나를올려든가병이다당악의드러쉬되
리호티에두사름식내어거마창을돌려덕희라등
군이를은대외와를은고초와등오방기물다두이
거른각영이호가지로다기를누이되오디표거는
누이더아닌느나리

호령포호즈루노코등군이대외를세오고봄은씨

오면나모의여물기를화병을내어보내되등군이
몬적판목을치하여노화니문을향하여헤아려내
고도라와알의여든증을려기를누이고블세주루
노코증치고대취하하야던문을다드라

사공죄를하러할제호령포호주루노코브라하나
흔블어든각장판기더총이니러섯다가즈시래평
쇼블거든좌편창판은기더총을드리고원택호하
하야안호로도라오고주벽은밧그로도라오고우
편장판은기더총을드리고을호택호로향하야안
호로도라오고주벽은밧그로도라드러등군에니
르러든증을려해평쇼를고치고등군이말방하되
고두하기노다리상발방즈니하고싸흔을제찰하

뜻호이를증을위하야시니하고와장이고날의
오디아니하니외병드니와아모일이나맛다나가
오디아니하니를유유히모하고증을러대취라
하거든신디로혹터가라

호령포호주루노코대기세오고나발호모극와민
라호번을물어든가병이다니러기게를잠아도적
을위하야심코티하라

호령포노코증을러대취라하야된문을열고나모
의며를기던화병을거두위드리되인하야수인을
치하야각문의가헤아려드리고등군의게도라와
들인수를알외어든증을러대취라를긋터라

물세주루노코증려대취라하야된문을닫고호령

포호주르노코나를올려든안자위고화전호주르
노하든핀안희불을이르고나를물먹을러든밤을
벗고밤을더어안존자리에셔먹으라

四方面操作

당외기를마하거나복노병이불을노키노아모면
으로도적이온다흠이니등군이아모빛치기를세
워용하고브라를불어든그편군병이니러섯다가
호령포노코뿔을털어야든밧기섯노군병이날희
여가서로싸호라군병거두오며물리기를다두총
핀진퇴하틴호령파호가지로히호되군병거두을
내에등군이머취타하야용하라

수면조를못총애등군이습핀을못차시니핀은기

두.인.디.라.품.하.노.괴.리.하.야.든.디.담.하.고.도.라.와.호
링.포.호.조.루.노.괴.리.라.불.고.큰.괴.를.세.위.든.각.병.이
너.러.셔.고.솔.밭.을.올.려.든.거.마.창.과.영.막.을.거.두.오
고.가.각.성.쇼.디.하.야.다.가.두.번.새.올.려.든.대.디.를.일
우.라.툽.군.의.천.엄.의.내.야.갓.던.괴.초.도.라.도.라.오.고.몸
을.려.하.야.든.방.영.을.변.하.야.전.대.로.누.층.을.뒹.글.라
긴.소.리.나.발.불.미.호.령.포.노.코.오.방.괴.최.다.뒤.홀.향
하.야.ㄱ.ㄴ.ㄷ.기.든.각.병.이.죽.시.뒤.홀.향.하.야.몸.을.두
로.혀.사.가.몸.을.려.하.야.든.던.을.들.어.가.다.가.스.므.나
른.결.응.만.가.증.을.려.몸.을.긋.치.고.셔.긴.소.리.나.발.불
고.오.방.괴.최.압.홀.향.하.야.ㄴ.ㄷ.기.든.각.병.이.전.ㄴ
리.몸.을.두.로.혀.사.가.증.을.려.고.대.취.라.하.기.든.던.은

들어 가 도로 잇던 사히니 르기 든 증을 취하를 다
리고 술 말을려 전스리거 두우라

좌우성 틈을 샷던 사호로도 가려 할케 단 여논호
못노코 현아 성 불어 든 각 영이 괴란 틈터 말고 고향
흥기를 흥가 지로 세 번 흥고 증을 현대 취하 흥기 든
전영은 둥근 좌턱길 압흥, 잇고 좌영은 전영 뒤희다
히고 우영은 우편길 압희 잇고 후영은 우영 뒤희 못
터 좌우로 평 흥야 각 각 신더 예 도라 와 구지 셔라
둥근 이더 아래 너 르리 둥근으로 배 아래 초판 서지
유상 압희 드러 셔러 소리를 넘히 흥야 알외여 홀호
터 둥근 천과 초 초판이 습조를 샷 흥야 노이다 흥고
고 두 흥야 든 니 흥라 흥야 든 디 답고 묻디 나라

동군이 파던 허기를 품고 그리 하여든 뒤 답고 물
러나 증을 타고 취하하여든 과병이 다 리 아래 서 문
을 들러 남으로 노리 되 모로 기고 기 췌 두 시가 더 알
라 과 초 판 파 허가 지로 비 렷 셴 기고 위 의 도 낙 각 제
영을 좃 차 가 다 가 동 노 의 가 후 터 지 고 주 장 기 드 려
보 내 기 란 말 라

동군이 낙 기 허기를 품고 그리 하여든 물러나 호
령 포 허스 르 노 코 나 고 삼 동 허야 괴 룰 디 오 고 초 취
하고 증 마 을 딩 딩 을 려 든 괴 치 를 세 출 의 노 화 세 오
고 이 취 하고 주 장 이 몸 을 니 르 허 물 을 타 든 증 려 대
취 하 하 라

書曰 晝夜操

나 제야 조항년 법을 다 기려 하거든 승천은 후의
다 세 방 영은 뒤 초 호령 포 노고 거은 기세 오고 대취
락하고 영은 을 다 들 후 의 호 호령 포 노고 북 써 오고
다 들 을 리고 기를 다 위 들 과 영 이 일 헤로 기를 리 오
고 기 화 호 번 을 노 코 빈 등 침 을 수 라 들 노 영 이 일 리
로 등 을 노 고 야 조 항 년 번 리 로 항 하 라

정야 소를 하려 하면 날이 검은 거든 방 영 을 뒤 고 알
암 쇠 되고 땅 약 리고 화 병 노 화 담 디 어 군 스 이 기 고
과 디 에 는 수 두 명 식 내 야 거 마 창 을 뒤 희 오고 거 가
창 안 히 들 조 약 호 무 터 기 식 외 호 고 의 호 기 뒤 희 뒤
불 초 호 곳 시 못 고 영 밖 기 설 호 보 동 안 의 화 회 홀 섬
할 무 터 기 식 사 호 라 이 는 밤 의 도 적 이 오 면 이 편 을

도적을 고고도적은 이편을 보지 못하게 하노라
라호령포노코카를을려든과군시당막의드러췌
등군이췌장서품하야군호를내여가호의련하야
든나최나군수의게련하야알게호되다모호스르
님시하야녕호고미리내디말라이는도적이알사
호이라복노당보내기논닷습신과又리하라

남들거든등군이호령포세번노코대취하호고영
문을다든후의셔호령포노코년라불거든가병이
다셔고호령포노코련아성불어든고함세번호고
호령포노코니를다위든나정이일체로치를다오고
그화노코등군의방개장남나정이일체로치를다오고

라

동산이 호령포노크된 각불고뵈써오고즈을리거
 든그날밤의야순흥장판과군시모두라뵈군이발
 방하야닐오티장판이나군시나다들으라하야든
 디답하고방순경을삼가하하야든디답하고일
 을노릇하면군법으로뵈히다술이리라하야든디
 답하고니러가라하야든디답하티소리클브티뵈
 고길게하라호령포노코라를올리거든안자쉬고
 리과에군스들석내여영받셔가화퇴노하라
 뵈뵈번을써오고경팅하노호령포노코현아성을
 고의양뵈뵈번려든과영이무함을현레로현호추
 레를도로라경팅하노녕천이오나든소리를말고

남의 회 사람의 몸을 호번하고 주라 온 영안히 영장
아나 식 돌려 총 순하고 영의 파 초어나 식 돌려
본 영을 순 영하고 의 수의 효의 지에 초관 지인 총
니 식 돌려 그 수와 그 초와 그 지에 순 영이라

도적을 만나 후 당 되 몬 쳐 너 르 거 나 후 복 되 몬 쳐 알
고 불을 노 거 니 귀 화 를 들 어 든 등 군 이 호 령 후 노 되
브 라 불 어 든 군 시 다 너 러 셔 고 도 적 이 신 보 안 히 들
거 든 호 령 후 노 코 현 아 성 불 거 든 포 위 순 망 을 호 되
불 노 순 범 을 우 희 인 인 범 대 로 호 고 도 적 이 설 호 보
안 히 들 거 든 귀 화 노 호 매 사 쉬 활 산 고 도 적 이 영 하
의 다 도 거 든 각 병 이 돌 조 약 으 로 더 더 되 거 마 창 안
희 셔 나 다 갈 라 도 적 이 들 러 너 거 든 증 칭 고 대 휘 라

한다가 증려 곳이라

던을 마마니 음기러 홀닌 먼 둥군이 호령 노코상
등을 가겨 념는 거는 과 영이 등 화를 호가 디로 념는
그 둥군이 텅 전 두가지 를 현는 거는 과 영이 죽시 등
화를 가겨 본 곳의 텅 퍼 음 초그 둥군이 텅 군 살을 텅
호야 든 맛 당 호 군 소 를 거 물 위 의 등 의 하나 식 덕 회
오고 죽시 과 초 차례 로 두 갈 로 노 화 마마니 호야
몸 갈 곳의 가 급히 텅 을 리 되 곳 호 곳의 이 거 든 호
자음이 돌며 잠아 곳 리 고 입 버 리 소리 말라 영 음
후의 텅 덕 회 텅 군 신 등 을 일 고 방 고 치 다 가 치 영
호곡 을 만나 든 일 시 에 등 을 음 초 고 소 리 를 남 치 영
호곡 을 만나 든 일 시 에 등 을 음 초 고 소 리 를 남 치 영

선하노고이러영외척노호령포노코현이성영외이름
사예고함하야든그병이조그을라함비셔오리
오길애늬씨오기못참애호영포노코등을뒤워든
과영등하들다그라동너치드거늘호령포노코의
물도고장호호초케하야든복노와당외다도라오
고너라불어든각병이셔고슬발을려든거마창양
막을것고사방포기다듬군으로도라오고호령포
노코현아성물거든고함세번하구름을던하야든
일름을들어함하야취임첫던신디예도라가려

前兵使崔楬解釋

是月相運

奇景如此

癸酉五月日威鏡監營關刊





